"지역사회 발전에 매진"

포천청년회의소, 신년교례회 개최

포천청년회의소는 4일 포천시청 3층 대강당에서 2008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포천청년회의소(회장 윤승진)는 4일 포천시청 3층 대강당에서 2008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심재인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강림 시의회 의장, 김귀찬 경찰서장, 황일현 농협지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청년회의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행사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포천 시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애향심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심재인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웅지와 정렬로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다해온 청년회의소 회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젊고 신선한 감각을 갖춘 청년들이 화합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포천의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승진 회장은 "33년을 맞는 JC는 그동안 미력하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면서 "포천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경복동문대상 이한동

경복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엄병윤, 세원ECS 회장)는 제17대 경복동문대상 수상자로 이한동(제29회 · **사진**) 전 국무총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6시30분 시청앞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복고총동창회 제83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에 실시할 계획이다.(발신 김창종 명예고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상록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재한외국인 대상 교육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신상록(48 · **사진**) 목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추진,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국어·컴퓨터 교육 실시 등 사회통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 목사는 1989년3월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푸른초장교회를 창립하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2년부터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및 자녀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06년6월 다문화국제학교 설립위원회 결성, 같은해 12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2007년1월에는 다문화국제학교 설립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한미여성총연합회와 외교부 선교회, 다문화센터 등 3개 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2월에는 다문화국제학교 건축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해 왔다.

신 목사는 또 2007년 6월 사단법인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컴퓨터 교육, 한국요리강습, 음악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는 결혼이민자 중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어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히 혜택을 받는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축구 통해 지역사회발전 앞장

영북면 축구인의 밤 200여명 참석

영북면 축구협의회(회장 이병섭)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 축구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북면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섭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께 감사드리며 30년 숙원이 축구대회 결승 진출이었는데, 이번 시민의 날 결승에 올라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준 데 대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격려사에서 "영북면 축구인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30년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거쳐 축구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영북면민의 자존심과 노력이 결속해서 축구협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10월 19일 시민의 날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에게 우승컵과 은메달을 수여했으며, 공로패는 서동호, 우수 선수에 영북OB축구회 김종식씨가 선발되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영북면 축구협의회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 축구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북면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지역 주민 치아건강 기대

포천병원 치과 과장 장우익 박사 초빙

1월2일부터 포천병원 치과 과장으로 장우익 박사(**사진**)가 초빙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로써 진료공백으로 인한 포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앞으로 포천시민 치아건강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과장은 "포천지역 주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치아건강의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우익 박사는 경희대학교 치대를 나와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우익 치과 원장으로 근무했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치의학과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봉사체험기

방계가 살아 있습니다

김기호
주부 명예기자단고문

새벽 5시에 소흘읍 상운아파트에서 몇몇 일행과 함께 태안반도 기름제거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신북 농업기술센타에서 집결하여 6시에 출발하였다.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회장 원성숙)의 주관으로 2007년12월 26일 시청에서 대형버스 3대를 지원 받아 130여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작목반)가 지정 받은 장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외항리 구름포 해수욕장이었는데 들어서는 길목에서 멀리 보이기 시작한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지막한 언덕은 해송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고 태양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은빛 물결은 눈이 부시다 못해 시릴 정도였다.

그러나 모퉁이를 지나자 방송이나 지상을 통해 본 바로 그 절망의 현실들이 눈에 확 들어 왔다. 모래사장은 거무스레 변해져 있었고 검은 바위 돌들은 마치 왁스를 칠해 놓은 듯 광택을 띠고 번쩍이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방제복과 마스크, 고무장갑으로 무장을 하고 바닷가로 달려가 보니 흰색, 노랑 색, 바위 색 등의 방제복을 입은 봉사자들이 보였는데 마치 수많은 새떼의 무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조아리는 정경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 보니 초등학생부터 칠십 후반 인까지 연령층이 망라되어 있는데 준비해간 천으로 묵묵히 자갈 하나라도, 바위틈새 한곳이라도 더 닦아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빨래를 부비듯 두 손으로 넓은 바위를 위아래로 닦아내는 분. 군인들이 퍼 올린 기름투성인 조약돌 더미에 앉아 하나하나 보석 윤을 내듯 정성스레 닦아 내는 분. 한곳의 자갈을 다 올려 닦아 내고 나니 바닥의 모래위로 검은 기름의 샘처럼 계속 고여, 천으로 묻혀 내도 묻혀 내도 끝이 없음에 망연해 하시는 분.

바위 편을 후벼파면서 손톱이 부러지도록 기름을 묻혀 내는 분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그 모습은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불멸의 인간 명화 그 자체였다.

한곳에 자리 잡고 바위틈 기름을 훔쳐 내던 난 깜짝 놀랐다. 무언가 움직였다 조그마한 방계가 기어 나온 것이다 등에 기름이 묻은채.. 경이롭고 기뻤다. 생명체가 모두 사멸 됐다는데 방계가 살아 있었다. 아아!!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간 우리국민 수십만의 애국심과 봉사로 절망이 희망의 기적으로 바뀐 것이리라!

감동을 억누르며 일행을 둘러보니 작목반 여러분의 모습은 더욱 진지했다 콩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흘린 땀만큼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누구 보다 잘 아는 그분들은 마치 내 작목에 무한의 정성을 쏟듯 몸과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물 떼가 밀려와 모두 철수해야 하는데 돌멩이 하나라도 더 닦아 내려고 천에 싸서 나오는 분을 보며 경의를 표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계준 사무국장은 시간이 한정되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한 며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기름제거 작업을 하고싶은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태안군을 벗어나며 나는 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태안군민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희망을 갖으세요. '방계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주관으로 130여명이 태안군 기름유출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자유기고

학사모를 남편에게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이사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날씨가 포근하다. 첫눈이 함박눈으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주었다. 대경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눈싸움하며 '우리 가족 건강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사람에게 빌어본다.

정해년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12월,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마감하는 사은회를 가졌다. 서정대학 김홍용 학장님께서 졸업축하와 함께 꿈과 희망을 이루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기원해 주셨다.

문득, 2년 전 입학식 때가 생각난다. '내가 대학생이 되었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과연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겁나는 마음으로 맞이한 대학생활!

23명의 학생들과 교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시작으로 졸음을 참고 함께 한 수업, 감동과 활력을 주는 영화관람, 남이섬 첫 MT에서 교수님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했던 축구, 철원 한탄강에서의 즐거웠던 레프팅, 심적 부담이 컸던 힘겨운 중간 기말고사, 강촌에 있는 팬션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선물을 준비해 마니또 행사도 하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고구마 구워먹고 아침에 시원한 북어해장국으로 속 풀이를 했던 1학년 종강파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의 졸업여행으로 해맑게 웃던 모습들, 산정호수 팬션에서 단합대회... 모든 것들이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나에게 많은 삶의 전환점이 된 대학생활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나로 인해 불편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목장으로 향하고 나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로 보내고 정신 없이 집안청소를 하고 가산목장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식사로 하루가 시작된다. 두 집 살림에 아이들과 아내를 공부시키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목장 앞에 비닐하우스 17동을 설치하여 시금치 농사를 밭에는 대파 농사를 짓고 아침저녁으로 힘들게 젖을 짜며 목장일을 병행했다.

일이 끝나면 가족이 다함께 모여 앉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생활을 원했지만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나는 야간대학을 가고 나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허전한 마음을 술로 달래기도 했다.

엄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아 준 연홍이 연수에게도 고맙고, 늦은 시간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소파에서 잠들던 막내 용주에게도 많이 미안했다.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가 있기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나에게 크나 큰 삶의 기회를 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졸업의 영광을 남편에게 전하고 싶다. 앞으로는 내가 받은 감사의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베풀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정해년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12월,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마감하는 사은회를 가졌다. 서정대학 김홍용 학장님께서 졸업축하와 함께 꿈과 희망을 이루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기원해 주셨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관성(慣性)과 타성(惰性) 39

관성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 타성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습관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타성(惰性)'에 젖어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 '관성(慣性)'이란 말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관성이란 자연계(自然界)에서 일어나는 현상(現象)을 말하는 것이고 타성이란 인간사회(人間社會)에서 일어나는 습관(習慣)을 말하는 것이다. 관성이란 자연의 것이요, 타성이란 인간의 것이라는 얘기다.

우주(宇宙)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던 한번 움직이면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고 또 한번 멈추면 계속해서 멈추려 하는 성질(性質)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관성'이라 말하는 것이다. 자연계에 관성이 있듯이 인간사회에는 '타성'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계에서 어떤 물질이 계속해서 같은 성향(性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한번 맛드린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성'이라 말하는 것이다.

'관성'을 지배하는 것은 저항(抵抗)이다. 공기 속을 달릴 때 일어나는 마찰(摩擦)이라는 저항이 있는가 하면 땅 위를 달릴 때 잡아끄는 역력(逆力)이라는 저항도 있다. 그리고 이 저항의 힘은 인력(引力)과 추력(推力)에서 오는 것이다. 이 같은 인력과 추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무너지지 않고 둥근 원형(圓形)을 이루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이고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성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성을 지배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우리 인간의 의지(意志)이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집념(執念)이다. 영어로 말하면 윌(will)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양심(良心)에서 오는 것이다. 우주심(宇宙心)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도 우주심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양심에 물어야 하고 우주심에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타성'이란 과거의 습관에 안주(安住)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환경(環境)과 습관(習慣)을 과감하게 바꿔야 하듯이 현실에 부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역시 과감하게 타성(惰性)을 떨쳐버려야 한다. 타성이란 습관에 젖어있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상(世上)의 변화(變化)를 따라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global)의 흐름(trend)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도 변한다. 자연과 세상이 변하면서 '환경'의 문제와 '습관'의 문제를 야기(惹起)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自然)이 아니라 영어에서 말하는 네이쳐(nature)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란 사람이 사는 인간사회(human society)를 말하는 것이다. 네이쳐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사회도 변한다. 이처럼 변하는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우리 인간도 거기에 적응(適應)하도록 변해야 한다.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수시로 변하는 자연과 세상은 지금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것이다. 현재(現在)의 것이다. 반면 우리들의 일상(日常)에 안주하는 타성은 과거(過去)의 것이다. 지난날의 것이다. 지난날의 습관이다. 지난날의 습관에 안주하면 현재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세상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갈 수 없다. 그 세파(世波)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 습관(習慣)을 바꾸고 환경(環境)을 바꾸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타성(惰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타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과거만 뒤돌아봐서도 안 된다. 추억(追憶)만 되씹어서도 안 된다.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미래(未來)를 내다봐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적응(適應)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습관을 고치고 환경을 개선(改善)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 인사

▶김광준 경제농정국장(승진) ▶김덕원 창수면장 직무대리(승진)▶이학수 농축산과장

이상 2007년12월31일자

▶김진태(사회복지과장→군내면장) ▶윤길현(환경자원과장→일동면장) ▶이봉훈(군내면장→사회복지과장) ▶이윤기(일동면장→환경자원과장) ▶김홍진(기획감사담당관실→회계과) ▶이명선(회계과→자치행정과) ▶권혁관(회계과→기획감사담당관실) ▶박래형(농축산과→수도사업소) ▶박덕신(도시과→수도사업소) ▶윤종호(보건소→신북면) ▶이원성(수도사업소→도시과) ▶김형완(수도사업소→내촌면) ▶김재완(소흘읍→회계과) ▶양영근(소흘읍→영중면) ▶이한원(내촌면→농축산과) ▶박민주(가산면→선단동) ▶이병욱(신북면→가산면) ▶김남현(선단동→소흘읍) ▶박영미(교통행정과→소흘읍(담당요원)) ▶이지향(기획감사담당관실→건설과) ▶박승집(기업지원과→환경자원과) ▶이영재(환경자원과→기업지원과) ▶곽명규(건설과→기획감사담당관실) ▶김진락(신북면→소흘읍) ▶송요상(창수면→신북면) ▶이현응(강릉시→창수면)

이상 1월4일자